

광주·전남 고속도로 휴게소 CCTV는 '먹통'

10대 중 9대 꼴, 얼굴식별·차량 번호판 확인 거의 불가능 범죄·사고예방 도움 안돼...국민안전 위해 교체작업 시급

광주·전남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CCTV 10대 중 9대가 사고 발생 시 사람 얼굴을 식별하거나 차량 번호판을 확인하기 쉽지 않아 범죄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휴게소 이용객이 하루 평균 수만 명이 상인 점을 감안하면,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

어 지난 7월 31일 현재 광주·전남지역 고속도로 내 휴게소 21곳에 설치된 CCTV 293대 중 87.0%인 255대의 경우 카메라 해상도가 100만 화소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100만 화소 미만 영상은 얼굴 식별이 어렵고 야간에 촬영된 것은 식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 설명으로, 범죄 예방 효과 뿐 아니라 사고 발생 뒤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얘기도. 100만 화소 이상의 CCTV는 고작 38대

(12.97%)에 머물렀다. 41만 화소 이하의 저화질 CCTV도 178대가 됐고 이용객들이 많은 백양사(천안·16대), 백양사(순천·16대), 곡성(천안·24대), 곡성(순천·3대), 주암(천안·4대), 주암(순천·9대), 섬진강(순천·32대) 등 11곳(52.38%)에 집중됐다. 휴게소별 CCTV 설치대수도 천차만별이었다. 중부고속도로에 있는 경기 이천 마장휴게소에만 100대가 넘는가 하면, 호남고속도로 분기점의 순천 휴게소는 단 2대에 불과했다. 국토부도 문제점을 인식, 지난해 11월 노후·저화질 CCTV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CCTV로 교체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여태껏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9개월 간 광주·전남지역에 설치된 CCTV에 범죄와 사고 현상이 포착돼 312건의 범죄관련 사건이 신속하게 해결된 점을 감안하면, 고속도로 휴게소 안팎의 CCTV 개선 작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노근 의원은 "CCTV는 범죄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꼭 필요한 장비"라며 "실제 범행현장을 안타깝게 놓치는 사례도 다수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교체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들녘 농약뿌리기 한창 10일 보성 득량면의 한 논에서 농부가 추수 전 해충방제를 위해 농약을 뿌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가스총까지 쏜 갓길 불법정차 시비

추석날 광주 북구 두암동 인근

버스·승용차 운전자 말싸움 끝

반병·최루액 발사 맞쟁...경찰 출동

시내버스 기사가 버스 통행을 막아선 채 불법 정차된 승용차 운전자와 시비를 벌이다 가스총까지 쏜 사건이 발생했다. 사실상 도로 기능을 못하고 주정차 공간으로 전락한 도로변 마지막 차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번 일곡' 시내버스 운전기사 이모(55)씨는 지난 8일 밤 9시1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B약국 앞 삼거리에 세워진 김모(23)씨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 이씨는 정차된 차량 때문에 진행하던 기존 차로를 벗어났다 다시 진행 차로로 되돌아와 우회전을 해야 하는 탓에 승용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고 김씨는 여러차례 울리는 경적에 놀라 약국에서 나오다 시내버스 차체를 손으로 두드렸다. 버스기사는 이에 앞문을 열고 "이곳에 차를 정차하면 되겠느냐"고 나무랐고 김씨는 "옆차선으로 충분히 우회할 수도 있는데 경적까지 울려대느냐"고 따졌다. 이씨가 시내버스에서 내리면서 양측 말다툼은 계속됐고 이씨는 이 과정에서 운전석에 보관 중이던 가스총을 김씨에게 들이

대며 "내 몸에 손을 대면 쏠겠다"고 경고했다. 김씨는 겁이 나 현장에서 5~10m 가량 달아나다 바닥에 버려진 반병을 보고 주운 뒤 다시 되돌아갔고 이씨는 김씨를 향해 최루액을 발사했다. 이씨는 "(김씨가) 폭력을 휘두를 것 같아 가스총을 쏘다"고 주장한 반면, 김씨는 "폭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부경찰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김씨 아버지(58) 신고로 출동, 김씨에게 최루액을 쏜 혐의(폭행)로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박기용 수습기자 pboxer@

광주전남혈액원 비리 복마전 채용 상납·주유비 착복 의혹

광주·전남혈액원의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버스 주유비를 빼돌린 직원들이 적발된 데 이어 채용 대가로 상납을 강요당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돼 진상 조사가 진행되는 등 '인도'와 '봉사'라는 적십자 정신을 무색하게 하는 형편이다. 류지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10일 공개한 적십자사 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혈액원 직원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혈버스의 주유비를 부풀려 작성하는 수법으로 약 130만원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비유를 저지른 직원 5명 중 3명은 해임됐으며 2명은 징역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류 의원은 "적십자사 신입 간호사가 채용 대가로 금전상납을 강요 받았다는 제보를 접수, 적십자사에서 진상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호기자 khh@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2 해질 18:46
 달출몰 20:09 달지름 08:22

“클록클록 감기 조심”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 되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17/28	보성	구름많음	16/27
목포	구름많음	18/27	순천	구름많음	19/29
여수	구름많음	21/26	영광	구름많음	16/28
나주	구름많음	15/28	진도	구름많음	17/27
완도	구름많음	18/28	전주	구름많음	16/28
구례	구름많음	16/29	군산	구름많음	15/27
강진	구름많음	16/28	남원	구름많음	15/27
해남	구름많음	16/28	속산도	구름많음	20/26
장성	구름많음	14/28			

◇바다 날씨

지역	바다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0.5
	면바다	북~북동	0.5~1.5	북~북동	0.5~1.0
남해	앞바다	북동~동	0.5~1.0	북동~동	0.5~1.0
	면바다	북동~동	1.0~1.5	북동~동	1.0~2.0

◇돌매

목포	밀물		썰물	
	03:33	15:54	08:41	20:59
여수	밀물		썰물	
	10:28	22:47	04:08	16:24

◇생활지수

- 식중독: 65
- 운동: 50
- 빨래: 90

◇주간 날씨

12(금)	13(토)	14(일)	15(월)	16(화)	17(수)	18(목)
☀	☀	☀	☀	☀	☀	☀
18/27	18/29	19/28	19/27	19/27	18/27	17/26

오늘부터 수시접수 지역 주요 대학 전형 특징 심층 면접·최저학력기준 없애고 자소서·추천서 폐지 등 부담 줄여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의 2015학년도 수시 모집이 수험생들의 부담 줄이기와 편의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수시 전형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 수험생들이 수시를 준비하는 데 학습 이외의 시간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들은 전형 간소화와 수험생 편의에 신경을 썼다. 지역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수시 접수를 한다. 전남대는 학생부 교과전형의 경우 지난해까지 실시했던 심층면접을 폐지하고 일반면접(20% 반영)으로 대신한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종전의 입학사정관전형이 발전된 형태인데, 지원자격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학교생활기록부 외에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을 받지 않는다. 조선대는 특별전형(사회적 배려자 전형)의 경우 학생부 최저학력기준을 없애 수험생들의 정신적 부담을 줄이고, 전형료(2만5000원)를 면제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광주대 수시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대폭 줄여주기 위해

전격적으로 면접고사를 없앤 것이다. 실시시험이 있는 사지영상학과와 음악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교(부)에서 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합격자를 뽑는 것이다. 또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부, 경찰법행정학부, 국방기술학부 등 일부 학교(부)에 적용했던 최저학력기준 역시 폐지했다. 동신대의 인기학과인 군사학과와 한국어교원학과, 안경광학과, 뷰티미용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생활체육학과, 방송연예학과, 실용음악학과 등은 정시모집 대신 수시모집만 한다. 호남대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형 90명 역시 수시에서만 선발한다. 학생부 100%를 반영해 선발하는 창의인재전형은 별도의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 대신 모집단위별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여 선발한다. 이와 함께 남부대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기존 학과 학생은 물론 모든 신입생들 가운데 장에 (1~4급)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전부 복지장장애학금을 지급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자산건전성 8년연속 1등급 금고

경영평가대회 "대상" 수상기념 경품 행사

기간 9월 1일 ~ 12월 31일(4개월)
 경품추첨일 2015년 정기총회(2월 예정)
 (5등 경품 선 추첨후 공고)

선물1 기념품(택1)
 카드영수증, 핸드폰 충전기

선물2 계약시 즉석복권 증정(100%당첨)
 통장지갑, 세라믹냄비, 유리상자

선물3 계약시 경품 응모권 증정

- 1등 | 황금열쇠 수금 1냥(1명)
- 2등 | 가전제품 100만원 상품권(2명)
- 3등 | 제주도 항공권 및 숙박권(3명) [동반 1인 포함]
- 4등 | 온누리상품권 5만원(4명)
- 5등 | 온누리상품권 3만원(100명)

가전제품 상품권 1,000,000원

※ 중복 당첨시 상위 품목으로 증정, 재세공과금 본인부담

자격을 위한 기준
 • 출자금 10만원 이상 입금고객
 • 정기예금 월1,000만원 이상 가입고객
 • 대출 1,000만원 이상 실행고객
 • 생명공제, 자동차보험 가입고객

※ 전자금금 신규자
 • 자용이체 3건 이상 신규자
 • 체크카드 신규자(1회 이상 이용고객)
 ※ 경품추첨일까지 정상이지 않 이용 거래자
 ※ 상기 자격기준은 회원에 한함

MG금남새마을금고

대인본점 223-8007, 232-7251(대인동 한미소평 1층)
 충장지점 223-7217, 223-7218(충장로5가 입구)

상상할수 없는 파격조건!! 동성노블리 특별분양!!

전세가격 폭등!! 차라리 내집을 사자!!
용봉동 동성 노블리 3차

베스트인주 2014년 11월 (예정) 무이자 78/75

선착순 마감임박

한자리에서 북구의 모든 실속을 누리려!

1. 실업수급 2천만원(최소 금액으로 입주가능)
2.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3. 용봉C 입방향 공사 예정(불편한 교통환경의 해소로 인한 미래까지 상승 요인)
4. 전·월세 보증금으로 내집 마련(2,000~4,000만원대)
5. 일곡청솔아파트 총 1,400세대 분양현황으로 인한 임대수요 풍부

노블리 OONGSUNG

위치 용봉C(순천방향) 용봉현대아파트 앞

문의 062-385-3080